

사설

남북교류 활성화 하자

8·15 민족통일대회 기간 중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는 분단 57년 만에 처음 남북 불교도가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법회를 연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의 북측대표 외부일정 불허방침으로 무산되고 말아 안타까운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을 기념해 남북불자들이 서울 조계사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각각 동시에 법회를 열고 공동발원문을 내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다.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 후 전개된 만만치 않은 정치 외교 군사적 격랑 속에서도 남북에서는 이제 '한자리 합동법회'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비록 북한의 종교가 정치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북한에는 60여 사찰에 3백여 명의 스님, 10만 여명의

신도들이 있다. 어떤 형태이든 남북 불교도들이 한 시간에 함께 같은 뜻의 법회를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서울에서의 합동법회가 무산되었다 해도 앞으로 거듭될 동시법회는 남북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부터 정치적 이념을 떠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느리나마 그 결실을 하나씩 거두어 왔다. 이는 통일을 위한 종교계 역할의 비중을 가늠케 한다.

특히 불교는 인도적 이념을 같이하는 자비 보시 상생의 종교다. 통일에 대한 접근으로 이만한 덕목이 어디 있겠는가. 통일을 향한 불자들의 불자다운 공덕을 기대한다.

노선조사위가 잊지말아야 할 것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북한산 관통터널을 반대해온 불교계의 공사강행을 주장해온 서울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측이 12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이 기간중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새 노선에 대한 합의의 틀을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스님들을 폭행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노선의 채택을 주장해 왔다.

노선조사위원회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선조사위의 활동과 결정이 이후 개발과 환경

보전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으며,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호함을 털어내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주장은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개발은 하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립공원마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다면, 가속도가 붙은 개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또 사찰의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정신의 피해까지 불러온다.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개발로부터 최후까지 지켜야 할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문화유산이자 정신을 맑히는 도량인 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보전이 우선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노선조사위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기념관~수송동 시민공원 조성
완공후 소 음악회·연극 공연 장소로
'전통문화벨트' 잇는 '문화지구' 추진

조계사가 우정충국에서 수송공원까지 이어지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재가불자 전문수행원을 개원하는 등 수행과 포교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왔던 조계사가 전통과 현대미를 갖춘 시민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과 함께하는 조계사로

조계사는 이달말 대웅전 해체 복원불사에 착수하는데 이어 9월에는 현 출입구 자리에 일주문을 세우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재 총무원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공사가 끝나는 대로 덕왕전을 해체하고 조계사와 역사문화기념관 사이에 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조성, 우정충국에서 수송공원까지 이어지는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이 끝나는 내년 7-8월경에는 새로 조성된 시민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나 소공연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다고 판단, 사찰 맞은편에 위치한 조계종 복지재단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불교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을 건립하는 한편, 일주문 앞 거리의 가로등도 전통 등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조계사는 '외국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열린 조계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조계사는 또 최근 인사동에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계사 일대도 '문화지구' 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찰 내부 및 외부 환경 정비와

함께 주변 여련복 작업에 나서는 등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소들이 밀려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문화업종 입체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조계사는 경북경에서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의 중요한 축이자, 불교역사의 중심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지구로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주지역 개척포교 적극나서

LA포교사단 자문봉사팀 두고 이민수속등 각종 상담·지원

내년에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고 있는 불교계가 드디어 개척 포교에 나선다.

LA 포교사단장 김인수는 최근 이민변호사 자문봉사팀을 두고, 조계종 포교사들의 포교도량 개척 지원을 위한 이민수속(영주권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상담활동을 나선다. 또한 미국내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교포 불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청소년, 이민, 의료, 장의 문제 등 불교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유럽 정교도들의 초기 이민역사에서, 이제 동양의 불교도들에 의한 새로운 이민사가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 등 각국 불교가 미주 교세확장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장하고 있고 일본 불교, 중국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등의 활약이 이젠 주류 미국인의 종교인식을 바꾸어 놓은 상태다. 특히 미국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LA포교사단은 개척포교를 통해 교민불자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다민족)에게 직접 다가서 활기를 증진해주는 현장의 포교사로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비전을 수립중이다.

김인수 단장은 "전 미주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개척포교에 활기를 불어넣어, 교포불교의 한계 극복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A 포교사단 사무처=lapog yosa@pog.yosadan.org 김재경 기자

붓다의 땅 인도에 전법의 등을

불교가 사라진 부처님 땅 인도에 다시 불교가 소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내에서 온갖 탄압속에 벌어지고 있는 불교로의 개종-신행-자활활동을 우리 한국 불자들이 도와야겠다는 원력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방 스님들을 비롯한 재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사무국: (02)745-7799
▲동참 계좌번호: (호출)741-04-365950(예금주:인도 등기)
▲주최: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의견계정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선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인터넷: '부다피아'
불교소평 '마하를'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이자 조각과 유적의 보고, 세계문화 유산!

慶州南山

新羅精神과 藝術의 慶州南山의 총체적 報告書!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전을 컬러 사진!

5년간 2백여 차례의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사적 제311호인 경주 남산에 소재한 포석정 등 670여개소의 유물 유적과 140여곳의 절터, 석불 100여기, 등 불교유적 그리고 왕릉 13기 등 선사유적과 4개소의 산성 등을 비롯해 경주 남산의 모든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컬러사진 800여장에 담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권위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으로 구성!

권위 있는 연구진과 필진, 그리고 해설 조사연구진의 빈틈없는 조사 연구와 필진의 얹고도 탁월한 해설이 중요문화재의 명칭은 물론 소재지와 시대, 규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경주 남산의 전면에 다시금 눈 뜨게 한다.

이 책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위 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이 구성되어 가능하였다.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특대판, 고급양장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특대판형 圖錄과 解説 2권에 대중적 가격, 3억여원에 이르는 제작비와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특대판 고급양장에 도록판과 해설편으로 묶인 '경주 남산'은 전문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산정하였다.

〈정가: 2권 1세트 230,000원〉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圖書出版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